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 동향*

이 영 숙**

- I. 들어가는 말
- II. 1970년대의 연구방향
- III. 1980년대의 연구경향
- IV.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논의 및 제안

I. 들어가는 말

동구권의 급격한 변화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잠정적으로 약화시키고, 민족개념을 급격히 부상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곧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기상도를 바꾸어 놓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통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점화시켰다. 그러나 40여년 이상 분리 끝의 통일은 물질세계를 이루는 하부구조와 정신세계를 이루는 상부구조 양자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그 충격은 지대 할 것이다. 우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남북의 동질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청소년이 다른 사회조건에서 성장한 끝에, 태도 및 행위상 어떤 이질적인 면이 있나를 우선 헤아려내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동질성은 무엇인가도 민족적 차원에서 헤아려져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무엇을 어떻게 동질화 시켜야 할 지,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정책 수준에서 구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분적, 단편적 연구였다. 북한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남한에서 실시된 북한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추세와 현황을 정리한다. 그리고 미래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북한청소년연구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선행연구를 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기존연구

*이 논문은 본원의 1991년도 연구사업인 “북한청소년연구”중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동향”을 게재한 것임.

**한국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

와 기초자료에 대한 본 연구의 검토는 문제제기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북한청소년을 주제로 한 체계적 연구가 요청되는 상황에 이러한 연구는 이 분야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북한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가 가진 성격은 무엇일까? 이 글은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포괄적인 흐름을 고찰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시기의 구분은 1970년대와 1980년대로 나누어, 이 분야연구의 시대적 추이를 구분하고 검토해 본다. 이 글은 특정 연구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을 개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기존 북한청소년 연구물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될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예비적 정리가 될 것이다.

논의의 자료와 자료 목록에 포함될 연구물들은 1970년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저서와 학술지에 실린 논문 및 학위논문들이다. 특기할 것은, 교육제도에 대한 것은 하나의 독립된 분야가 되므로 이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교육내용이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논의의 일부일 때는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II. 1970년대의 연구 경향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북한 및 공산권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의 하위분야로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북한 및 공산권 연구라는 상위분야의 연구 추세와 동떨어진 것으로 북한청소년 연구를 다룰 수는 없다. 북한 및 공산권 연구는 주로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개척되었다. 1960년대의 북한연구는 내적으로는 남북한간의 대결구조에 의해, 외적 환경으로는 국제 정치

계의 냉전구조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런 상황에서 행해진 60년대 연구의 주내용은 반공홍보 혹은 북한의 내막 폭로로서, 비학문적인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안병영, 1977a, p. 52).

북한연구는 특히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70년의 8.15선언과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정책 분석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 차원에서도 고조시켰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에 북한연구기관이 20여개소 설립되었고, 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안병영, 1977a; 김광수; 1985, p. 79; 염홍철, 1987, p. 3). 그러나 양적 팽창과는 달리 1970년대 말까지 연구업적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 시기까지 전체 북한 관련 연구물의 85.5%가 “기술적인 해설 또는 시사적설명류”(구본태, 1981, p. 140)에 속하는 접근 시각의 취약성을 지적받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과제는 개괄적으로나마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이론적, 방법적 시도와 진전을 거쳐왔나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1969년에 설립된 국토통일원이 70년대 초에 연구물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이 북한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연다. 국토통일원 발행의 단행본들로는 1971년의 「북괴 사상교육 내용과 그 분석」, 1973년 채중묵의 「북한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 어운배의 「북한여성의 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세 편의 연구물은 모두 정치사회화 문제를 다루는데, 청소년의 사회화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북한 주민의 재사회화 또는 사상교육에 대한 연구물에 북한청소년의 정치사회화 과정이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뒤에서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물의 주 내용은 정치사회화 혹은 사상교육에 대한 것이다. 즉, 정치교육을 통하여 북한청소년이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자로 사회화 되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 남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치사회화의 연구만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남한의 정치학계가 가지는 특징이다(진덕규, 1990, p. 6). 상당히 활발한 북한의 교육제도 연구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볼 수 있다. 북한의 교육 이념, 과정, 내용 및 정책에 대한 연구도 거시적으로 북한의 교육체제가 이념적으로 북한의 사회질서 내지는 기존 체제를 재창조한다는 입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북괴 사상교육 내용과 그 분석」(1971)에서 국토통일원은 북한 사상교육 내용의변천이 젊은 세대들의 사상 혹은 가치관과 행위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나를 연구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북한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물을 주 자료로 하여 재해석한 것이다. 북한의 사상교육 내용의 시기에 따른 변천으로는 건국사상 총동원,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 혁명전통 교양, 유일사상 교양으로 대별하였는데, 그 교육의 근본 목표는 유물사관의 확립에 있다는 것이다(국토통일원, 1971, pp. 7-8). 사상교육 방법으로는 수업, 단체생활, 노동, 군사훈련을 통한 교육이 있다(앞글, pp. 27-45). 예를 들어, 수업을 통한 사상교육 방법으로는 “아버지가 들려 준 이야기”에서 지주에 대한 계급적 증오심을 교육한다는 것이었다.

정치사회화의 내용은 두가지 다른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화 담당기관이 의도하는 주체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사회화의 결과에 대한 연구이다(안병영, 1977b, p. 5). 구체적인 연구에서 이 두 측면은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로서 규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북한청소년 연구에서 그러하다.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정밀한 측정에 의해서만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상교육의 효과를 다루는 章에서 저자(국토통일원, 1971)는 방법론적으로 비약을 시도한다. 가치행위에 선행하고, 가치행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인 사상교육에 대한 측정은 기존 연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속변수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문헌 출처에 대한 표기는 없다. 즉, 종속변수인 젊은이들의 가치경향에 대한 측정은 없이 바로 유추로 들어가서 단정적으로 기술하였다(국토통일원, 1971, pp. 48-52). 그리고 이 연구물은 가치와 행위에 대한 연구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데(p. 48), 그 원인은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 없이 바로 유추하였으므로 사상교육의 효과를 논할 때 가치경향과 행동면을 구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선행연구물을 재해석했으니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저자는 사상교육의 영향으로 북한의 젊은이들이 첫째,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경시하고, 둘째,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고, 세째, 국제정세, 통일전망, 민족의 장래 등에 대한 판단은 당과 절대권자의 의견에 무조건 의거하고, 네째, 역사와 민족전통, 고유문화, 민족의식 등에 회의심을 가지고 현실위주 인생관을 가지고, 다섯째, 의식구조가 극에서 극으로 달리며 중용지도가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앞글, pp. 50-51). 따라서, 저자는 북한청소년이 남한 청소년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 원

인이 사상교육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이 주는 정책적 함의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에 대한 강조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따른 남한의 젊은 세대의 공산주의 비판능력 필요성이다. 뚜렷한 흐름이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사상교육이 지도자의 사적 도덕성의 통제, 이데올로기 단일적이라고 연구자가 함축적으로 전제하고 분석하므로 전체주의적 모형 접근법의 경향을 볼 수 있다.¹⁾ 이러한 북한청소년에 대한 초기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정책적 측면이 그 이후의 연구에 어떻게 잔존하는 지를 보게 될 것이다.

1973년에 「북한여성의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어윤배는 북한청소년 여자에대한 사회화 과정을 약간 논하고 있다. 북한청소년을 남녀 성으로 구분하여 사회화를 논한 것은 1990년대 초기까지도 흔하지 않다. 이 연구물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치이념을 어떻게 사회화시키나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어윤배, 1973, p. 4). 어윤배는 여아의 성역할 습득이 일반적으로는 동성인 어머니의 성역할을 동일시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여성 가정에서 충실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는 여성”을 내면화하여 습득하게 되는 성역할 학습론을 전제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경우는 “여아들은 노동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와 동일시하거나 유치원 보모와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다만 일하고 싸우는 노동자와 전투원으로 동일시 되는 편”이라고 한다. 이것이 여아의 동일시 과정에 혼돈을 준다고 한다(앞글, pp. 53-55). 남한의 국민학교에 해

당하는 인민학교 교육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구별되는 점은 학과를 통해서나 과외활동을 통하여 찾아 볼 수 없다”(앞글, p. 56)고 한다. 고등중학교 교과과정 가운데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가사재봉을, 고등학교에서는 가사재봉과 간호학을 수업시킨다. 1970년 현재로 북한에서는 130개 대학에서 인문계 40%, 기술계 30%, 사범계 80%는 여학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자대학생도 남자대학생과 똑같이 노동적위대 대원으로 행동한다고 한다(앞글, p. 56-59). 이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물은 북한이 남녀 구별 없이 학교교육을 통해 모든 과목에 정치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부분 결론을 맺고 있다. 어윤배는 북한사회의 이념에 입각한 획일화된 사회화 과정을 노출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사회화 모습을 기술해 주었다.

같은 해인 1973년 채중묵의 「북한청소년의 가치관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 대로 북한청소년이 사회화되는 제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 따라서 북한청소년이 어떠한 성격 및 가치성향을 가졌나를 도출해 내고, 그러한 북한청소년의 가치관이 남북통일 문제에 미칠 영향을 두가지로 가정해 본 연구물이다. 저자는 북한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한 요인으로 가족제도와 가정생활, 일반교육제도, 그리고 기타 사회문화제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가족제도에서, 북한의 가족개념은 혈연중심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기초 단위로 축소되었다고 한다(채중묵, 1973, pp. 16-17). 따라서, 어린이 양육은 탁아소가 맡아하므로 어린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시간

1) 전체주의에 대한 특징은 안병영, 1977년(a), p. 19를 볼것. 모형은 이론의 略圖와 같은 것이다. 상세한 설명은 김광웅, 1978년, pp. 117-152에 있으니 참조요.

이 없다고 한다. 탁아소에 의해 어린이 양육은 개인주의 지양, 집단주의, 공공성 및 조직지향적 성격을 사회화한다고 해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가족은 결손가족의 경우보다 더 심한 비정상적인 가족이 되므로, 북한청소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앞글, p 19).

일반교육제도의 목적은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으므로, 유물사관에 입각한 노동하는 기계적, 혁명적, 전투적 인간 형성에 기본 정책을 설정한다고 한다(앞글, pp. 22-23). 따라서 배타성, 획일성, 공공성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며, 다양성, 상대성, 개별적인 것은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유념할 것은 이 연구물의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이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 내용분석에 의한 유추라는 사실이다(앞글, p. 5). 사회교육과 기타 사회문화제도에서 도출된 가치성향도 위의 열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을 종합하여 유추한 북한청소년의 성격 및 가치관은 첫째, 전투적 호전적 성격, 둘째 급진적 강박적 성격, 세째, 금욕적 성격, 네째, 자아부정적 성격으로 강한 집단조직력, 다섯째, 편집적 성향으로 나타났다(앞글, pp. 44-45).

이 연구물의 특이한 점은, 북한주민을 핵심계급, 기본계급, 소외계급으로 3분하여 청소년의 체제에 대한 입장을 가치관 논의에 포함시킨 점이다. 소외계급은 지주, 일제하에 고등교육을 받은 자, 전 관료출신, 기업인, 종교인 출신으로서 반체제적 성향을 띤 계층이라고 한다. 이들의 2세인 청소년이 소외계층으로 부터 상황이동을 위하여 체제 순응적 성향을 띤 것이라고 채중묵은 유추하였다(앞글, p. 46).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은 언제 어디서나 불만을

가지므로, 소외계층 2세 청소년에 대한 권력 엘리트 기회 배제는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귀순자를 통한 자료를 재인용하여 분석한다(앞글, pp. 47-48).

그런데, 기술혁신, 소비재 생산의 발달, 외 부문화와의 접촉빈도 상승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를 예견할 경우 “사회구조 변화와 청소년의 가치관, 성격 형성 내지 변화와의 관계는 상호작용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앞글, p. 50). 그러므로 사회가 변화할 때 북한의 이념체제와 청소년의 가치관 사이에는 갈등이 누적될 것이며, 북한청소년들은 변동을 강력히 추구하리라고 간주했다. 따라서, 저자는 북한청소년이 “반체제적 잠재세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가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통일 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 북한청소년의 가치 성향이다(앞글, pp. 50-51). 지금까지 저자의 해석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청소년에 대한 전투적, 집단적 성향 유추
- 북한청소년도 청소년 일반의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유추
- 사회변화에 따른 공산주의 이념과의 갈등 가능성 유추
- 반체제적 가능성 유추

이것은 전체주의 모형에 비해 상당히 “갈등적” 요소를 추정하고 있다. 1970년대초는 한국 사회과학계에 구조기능론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들이 소개되기 시작한 때이다(정진성, 1985, p.11). 갈등이론이 이 연구물(채중묵, 1973)에서 구체적으로 집단간의 역동적 이해관계분석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나, 영향을 준 것은 틀림 없다.

사회과학계의 시각의 다양성을 반영하듯,

1973년에 조영빈은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척도 모델에 관한 연구」를 냈다. 이 단행본은 Parsons의 사회체제 이론과 Dahrendorf의 집단갈등 이론에 의거하여 첫째, 사회체제와 문화체제의 상호연관성을 기술하고, 둘째, 가치정향, 통합, 갈등 개념으로써 남북한을 서로 비교하는 척도를 구성하고, 셋째, 전체주의등의 체제형으로써 남북한 비교연구를 보완하려는데 목적을 가졌다(조영빈, 1973, p.6). 일견 이 단행본의 내용은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상관이 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몇 건의 연구물이 북한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치사회화에 대한 것이었다. 앞으로 계속 나타날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물들의 이론적 틀을 규명하는데 이 연구물의 이론적 영향을 참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상세히 검토한다.

조영빈은 Parsons의 행위체제의 네가지 기능도식 *the four-function Paradigm*이 모든 체제의 절대적 요건이 되는 유형유지, 통합, 목적달성과 적응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론으로써 남북한 사회문화체제의 특성을 비교한다. 특히, 기능의 유형유지 또는 문화체제는 “체제의 유형을 유지하도록 사회행동의 동기화 또는 동기부여의 기능인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이 모든 사회행동의 동기를 규제”(앞글, p. 26)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그의 가치와 체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인을 조직으로 묶어서 그들의 동기부여를 사회목적을 위해 제한하며, 개개인의 생활을 엮어 놓았다”(앞글, p. 26)고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념이 어떻게 북한주민 또는 북한청소년의 사회적 행위의 동기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된다는 말이다. Parsons

의 이론은 궁극적으로 사회 각 부분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나를 각 부분의 기능으로써 설명하는 체계이므로, 이것을 북한사회의 정치사회화에 적용할 경우 청소년이라는 부분이 국가라는 전체에 통합되는 기제를 설명하도록 설비되어 있다.

또 한편, 조영빈은 Parsons의 모형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정량과 규범구조를 분석하는데는 적합하지만, 그 사회의 실제 사회제도를 분석하는 모형로서는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Dahrendorf의 강제이론 *coercion theory*으로써 사회제도의 사실적 측면을 설명하고자 하였다(앞글, pp. 43-45). Dahrendorf가 사회분석의 토대를 권위관계에 핵심적으로 두며, 상이한 권위의 분배는 사회내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 엘리트 충원과정에서 당 경력이 중요한 조건이므로, 북한에서 당은 “모든 정치계급을 충원하는 동질적이며 조직화된 준 집단”(앞글, p. 61)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계급내의 갈등하는 이익 관계 때문에 김일성 직계/비직계, 국내파/국외파, 게릴라출신/전문직업군인, 이론가/에지테이터, 정당간부-정부관료/전문적 직업군인/기술적 전문가-행정가로 갈등집단을 대비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앞글, p. 65). 이것은 지배구조내의 권력 엘리트인 성인들의 세계이므로 직접적으로 북한청소년의 가치관이나 성격 형성 또는 사회화에 관련이 없다. 그러나, 앞의 채중묵(1973)에서 논의했던 소외계층 가족출신의 북한청소년의 가치성향이 체제순응 또는 반체제적일지 여부가 여기서 다소 상세히 논의되었다. 출신가족 배경에 의한 신분구분에 따른 사회이동 문제는 제 2세대대의 사회적 상향이동 문제와 연관하여 갈등집

단 형성의 가능성을 다소나마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하였다(조영빈, 1973, pp. 67-70). 이와같이, 조영빈은 북한이 전체주의 사회라는 기본모형에 남한은 자유사회라는 모형에 각각 구조 기능론적, 갈등론적 양측면으로 사회문화를 비교 분석해 본 것이었다.

1975년 “북한연구 30년의 결산”이라는 특집을 「북한」지가 마련한 것을 계기로 선행 북한연구에 대한 학문적 자성이 일어났다. 거기다 국토통일원의 제간 논문집인 「통일정책」이 창간되어 북한관련 연구물이 1975년을 기하여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임채욱, 1985, p. 100). 연구인적 자원면에서 1970년대 후반기가 전반기까지의 북한관계연구 인원수의 거의 두배에 달했다(구본태, 1981, p. 150).

이 즈음의 북한연구 방법론상의 문제를 구본태(1981, pp. 136-138)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로, “동·서 양진영간의 대립과 남북분단 구조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몰두”하여 왔다. 둘째로, 북한연구의 방향에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연구가 홍보적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과학이면서도 객관적 진리를 지향하는 사회과학적 대상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로, 접근 방법론적 대안에 대한 모색이 있다. 대안으로는 체계접근법, 비교공산체제론, 행태적 접근법, 엘리트 분석, 사회학적 접근법, 역사적 접근법등이 기존 연구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1975-6년에 발표된 대부분의 방법론 연구는 정치학 분야에서 경험론적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론적, 체계적 연구 방향제시가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정치, 외교, 군사 분야와는 달리, 북한청소년 분야는 아직 연구인적 자원부족과

제도적 후원 결여 때문에 1975년을 계기로學的으로 전환점을 가지지 못하였다.

1990년대까지 북한청소년에 대해 가장 많은 글을 쓴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황성모는 1975년과 1977년 사이에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세 편의 다른 접근법을 소개하는 글을 썼다(황성모, 1975 : 1977a : 1977b). 1975년의 “북한학 연구방법의 역사론적 시각”에서 해방 이후 변화해가는 북한의 사회 전개 과정에서 “새로운 지배계급,” “새로운 가치의 제도화”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해방 이후 북한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앞으로 민족 통합 작업에 북한에 대한 연구자가 유념해야 할 점으로 지적한다(황성모, 1975, p. 100). 이 역사론적 시각은 북한사회를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의미를 가지나,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 소개된 종속이론의 영향에서 보여지는 민족 대외세의 도식이 아니다(이시재, 1985, pp. 60-66). 그리고 그것은 민족을 역사 정치 사회 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는 방법과는 다르다. 황성모의 경우는 북한이 어떻게 기존의 민족모습으로 부터 분절, 이탈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다. 역사론적 방법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김명섭(1989, p. 26, p. 71)이 거론한 바와 같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정치사 변화에 대한 시기구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 유념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유사한 사실이라도 소속시기에 따라 “역사적 규정성”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1977년에 황성모는 북한연구에 이해사회학적 방법으로 보완할 것을 논하였다(황성모, 1977a). 이것은 안병영의 1977년 「기존통일 및 북한관계연구의 주제별, 방법론별 평가 및 발전

방향정립」에 나타난 8가지의 접근법²⁾에 하나 더 보완을 의도한것이다. 황성모는 Max Weber의 내적 주관적 동기 파악을 강조하는 이해사회학적 방법론을 북한사회에 적용할 경우 경험적 접근방법이나 행태학적 접근방법으로는 측정 불가능한 규명적(糾明的)이해가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도대체 북한의 사회체제가 어떻게 해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금일과 같은 <一色의 人間>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가?” 둘째, “어떠한 의식통제와 관리체제가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체사회를 위한 기능과 결합될 수 있게 하였는가?” 셋째, “생활 조건은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인간행위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촉진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해사회학적 방법이 규명적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성모, 1977a, p.135).

그런데, 북한주민들에게 주관적 의미 발생의 준거가 주체사상이므로, 이것이 북한주민의 사회화과정, 그 법칙성, 동기를 규정한다는 것이다(앞글, pp. 136-138). “이상과 같은 전제 밑에서”(앞글, p. 138) 이해사회학적으로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가족, 농업, 노동관리, 교육제도에 우선해서 주체사상을 “이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Max Weber는 이해사회학 방법으로써 근대자본주의를 발생케한 동기를 Calvinism의 신학적 윤리에서 보았다(베버, 1980). 그것은 Marx의 계급이론에서 결론하는 종교가 소외계급을 무마시키는 허위의

식이 아니라 사회를 변동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회변동론이다. 황성모의 이해사회학은 그 사회의 체제를 통합 유지시키는 동기를 찾는 작업이었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된 Parsons의 구조기능론의 유형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동기화 분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조기능론에서도 Weber의 유행이 보인다는 Jonathan H. Turner(1990, pp. 52-54)의 주장은 황성모에게도 타당하다. 이것이 왜 황성모가 같은 해인 1977년에 “통합 갈등모델의 이론적 혼합”을 북한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제시했나를 설명해 준다. 황성모는 통합모델에 의해 전체주의 사회에서 전체제로의 통합을 분석할 수 있으나,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를 통합모델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론으로써 통합모델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성모, 1977b, pp. 194-195). 이중(1977, p. 202)도 단일 연구방법보다는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연구방법론을 동시연관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그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북한연구 접근법의 다양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북한청소년 연구물에 어떤 연구 접근법이 적용되어 북한청소년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나에 있다. 1978년 북한청소년에 대한 의식구조 연구가 도흥렬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것은 남한과 다른 북한의 이질적인 사회구조가 이질적인 북한청소년의 의식구조를 형성하리라는 전제하에 청

2) 8가지의 접근법은 역사 문화론적, 전체주의적, 복합조직, 근대화 발전론적, 집단갈등, 엘리트, 자우화, 체제론적 접근법을 말한다.

소년의 의식구조적 제 특성을 유추한 것이다. 그는 북한이 당에 의해 움직이는 전체주의적 사회이며, 탁아소와 소년단, 사노청, 여맹, 붉은 청년 근위대 등의 청소년 집단조직에 의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사회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교육의 교과서 내용분석이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 비교」(도홍렬, 1978a)라는 제목으로 단행본(국토통일원 발행)으로 나왔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청소년들의 의식구조도 북한의 정치교육의 산물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접근방식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비교의 문제이다. 무엇을 비교할 때에는 각 사회의 일반 특성을 고려해야만 정밀히 변수를 측정할 수 있고 타당성이 높게 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공식적 학교교육의 사회화 내용의 특성을 비교할 때, 남한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 실시한다”로 소개되었다(도홍렬, 1978a, p. 33). 북한은 당에 의해 승인된 가치만을 학교를 통해 교육하므로 김일성 우상화, 반미 반일 사상, 혁명전통교육, 집단주의교양, 북한체제의 우월성 등이 주된 내용으로 주입된다는 것이다(앞글, p. 35). 그런데, 남한 사회의 공식적 학교교육의 내용은 현실적인 개인주의적 과열경쟁 입시위주 교육목표에 의해 실제로는 변질되어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 그것이 전체주의적인 북한과 다른 남한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사회적 차이를 고려치 않을 때 분석의 결과는 왜곡되기가 쉽다. 특히 남한사회의 청소년 사회화는 전적으로 미화되거나 북한청소년의 사회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남북의 청소년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화합할 길 모색을 어렵게 만들 우려를 자아낸다. 양 사회를 극명하게 대

조시키는 핵심을 예로 볼 때, 북한의 집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전적으로 말살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남한 청소년의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나,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음도 함께 지적 되어야 한다. 무엇을 왜 논의하는 지에 따라 내용분석법은 주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 점은 도홍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물이 지니는 문제점이다.

도홍렬(1978c, pp. 130-132)은 북한청소년의 사회 의식을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유추하여

- ① 유아의 부모 사랑 결핍에 의한 적대적 심성이 강한 공격적 인간이된다.
- ② 독재체제는 공포와 불안의 지배이므로, 맹목적으로 당의 정책에 복종하여 과잉동조성과 불안의식을 가진다고 한다.
- ③ ②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권력에 동조하나, 내면적으로는 정치로부터 소원해지는 의식 구조의 이중성이 온다고 한다.

도홍렬은 1978년에 문헌 연구와 월남자와 귀순자에 대한 면담 조사방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화주관자를 중심으로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실태”를 상세히 기술했다. 특기할 점들은, 탁아소에서 집단주의적 양육을 하지만 가정의 중요성이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도홍렬, 1978b, p. 111). 그리고 사회화 담당기관의 제 특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청소년을 파악하기 위해, 앞의 황성모의 역사론적 방법에서 제기했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실제 분석에 적용한 것이다. 또, 인민학교를 마친 후, “출신성분, 가정환경 등을 참작

하여 당기관에서 엄선한 혁명 유자녀 및 특수층 자녀, 그리고 특수 기능 소유자”들은 고등중학교로 가지 않고 특수교육기관의 입학자로 선발 되어 간다(앞글, p. 130). 이것은 저자가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계층별로 구분해 본 것이다. 또한 그는 탁아소에서 부터 대학, 군입대까지 그리고 매스컴까지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북한의 사회화는 “조직 생활을 통한 당적 지도 밑에서만 그 체제가 기대하는 행동 유형으로 조형되는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앞글, p. 75). 즉, 사고, 태도, 행동유형이 모두 조직 내에서 정치적으로 사회화 된다는 것이다.

북한청소년에 대한 사회화 내용은 고영복에 의해서 추가된다. 고영복은 북한의 사회화 정책의 시대적 변천을 내용분석하였다(고영복, 1978, pp. 196-216). 해방후 부터 1950년대까지는 기초준비기로서 “건국사상 교양기”와 “계급교양기”의 특색, 1960년대는 “혁명 전통”과 “주체성” 교양의 특색, 70년대는 “사회주의 교육학 확립기”의 정책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화 작업의 특색(앞글, pp. 189-190, pp. 217-223)으로는 계획된 규율, 설정된 모형에 의한 의도적 사회화, 동일시의 대상이 제시된 규범적 사회화, 개인을 획일화 하는 집단적 사회화, 평생동안 동일 내용을 반복하는 연속적 사회화, 노동에 의한 지식을 습득케하는 실천적 사회화, 집단적 동조 속에서 주체성에 의한 자율성 강조를 들고있다.³⁾

이러한 사회화작업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성격이 다음과 같이 추정 되었다(앞글, pp.

190-191, pp. 240-247). 첫째, 공식적으로 정해진 욕구만을 추구하고 그 외는 억제한다. 둘째, 지적 배타성에 의해 공식적 논리만으로 사물을 해석한다. 따라서, 세째, 지적 심적고뇌가 적고, 자기합리화가 발달한다. 네째,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다섯째, 김일성 숭배와 사회주의적 관료주의의 복합적 소산으로 권위 지향적이 된다. 여섯째, 공격적 성격을 갖는다. 일곱째, 미래를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연구물에서 제시된 북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성격 유추와 그 내용이 유사하나, 조금 더 세분화되고 추가된 것이다. 첨가하여, 북한청소년의 사회적 성격의 전망에서 고영복은 전통적, 비공산주의적 성향을 지닌 기성세대와 공산주의식으로 사회화된 신진세대간의 갈등의 가능성을 보는 점이 새롭다(앞글, p. 248).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물들의 관심의 영역이 정치사회화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았다. 즉, 북한이 정치적 사회화를 통해 청소년을 사상적으로 재생산하여 획일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를 기존 연구물들이 기술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체계적은 아니나, 다소 전체주의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정치사회화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후반부에 와서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 발견적 가치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특히 방법론에서 그러한 점이 두드러지다. 1970년대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자료의 제한 속에서

3) 이러한 북한의 사회화 특징은 1979년의 고영복의 “북한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성격”(pp. 142-146)에서도 유사하게 기술되었다.

월남자나, 귀순자의 보고에서, 또는 북한의 인쇄물에 나타난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되었고, 그에 따른 방법론상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유추에 의해 측정한 문제, 남북비교시 각각의 사회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비교측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에 가장 큰 이유가 있으니, 이 자료를 다양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론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주의적/기능통합적 접근법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사론적 시각, 갈등론적 접근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계층에 따른 부분적 갈등, 변화를 사회화에 대한 내용 기술에 첨가시켰으나, 그것은 집단간의 이해 및 권위 분배에 따른 갈등의 과정을 사회구조 속에서 심도있게 분석한 것은 아니다. 각 시각의 접근법을 우리 상황에 맞게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구체적으로 북한청소년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III. 1980년대의 연구경향

1980년대 초의 연구경향은 당시의 남한의 정치상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유신체제 끝에 온 제 5공화국은 더욱 경직된 권위주의 체제로 강화됐고 “사회과학은 사유의 폭을 극단적으로 제약받아야 했다”(진덕규, 1990, p. 10). 그러나, 민주화운동으로 다소 풀어진 제 6공화국의 출현이 단숨에 북한연구의 방법론과 이론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가져온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물이 있었나를 본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에대한 연구의 관심이 새로워졌다. 이상우(1981)는 기존의 북

한연구물 전체의 약 50%는 북한과 관련된 주변정세 분석이고, 전체의 약 25%는 연구라기 보다는 홍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25%의 일부가 분석적 연구 논문(연간 약 50편)과 북한행위 기록논문(연간 약 50편)에 해당한다고 한다(이상우, 1981, pp. 84-85). 이런 비율의 연구물 수준을 “자료의 신뢰도, 치료처리의 합리성, 논리전개의 체계성, 확증의 객관성 등의 학문적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다면, 이 중의 상당수는 「학술논문」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한다(앞글, p. 85). 거기엔 “느낌만을 바탕으로 한 주장”(앞글, p. 85)의 논문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선행 연구를 평한다.

남한의 공산권관계 선행연구자를 세대별로 분류하여 공산권 연구의 시각을 이흥구(1981)가 검토해 보았다. 공산권 연구의 제 1세대는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토대로 공산권의 성격을 주관적으로 단정”하며(이흥구, 1981, p. 14), 제 2세대는 “체계화한 외국이론 등을 흡수하여 공산권에 대한 「재관적」이해를 시도”하며(앞글, p. 14), 제 3세대는 한국적 상황에 타당한 새로운 입장 개발을 시도한다고 한다. 이흥구는 남한의 공산권연구의 시각 일반이 가지는 취약점으로 공산권을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단편적, 단정적으로 분석하는 점을 들고 있다. 이흥구는 종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연구대상이 지닌 다양한 측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앞글, pp. 17-18).

지금까지의 북한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글을 1980년 황성모(1980a)가 발표했다. 그는 1980년까지의 북한연구가 “국가안보라는 현실정책의 요구”밑에서 진행된 결과 때문에 사회과학 방법으로서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적 논의를 편다(황성모,

1980a). 그것은 첫째로, 북한연구가 “불가피하게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과, 둘째로, 자료의 문제로서, 인שה물이 북한에서 당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공식적 형식적인 것이고, 그것마저 남한에서 일반배포가 되지 못하고 통제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앞글, pp. 11-13). 그리고 접근 시각면에 있어서,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명령, 강제, 공포의 기제의 틀” 속에 박힌 전체주의라는 모형에 의해서만 분석할 경우, “사회변화라는 동적 측면”을 간과하므로, 새로운 사회관계, 새로운 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기술해 답을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이다(앞글, p. 14). 더구나 전체주의 모형에만 따라 분석할 경우 연구대상인 북한의 “특수성 고유성 역사성”이 기술될 자리가 없어져, 일반 모형의 뼈대만을 따르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끝나게 되며, 지금까지 이러한 경향에서 못 벗어나 항상 추상적인 비슷한 내용이 되풀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앞글, p. 14). 특히, 모형개념을 분석도구로 하여 연구할 경우, “북한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의식내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데 대한 기본정보”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앞글, pp. 14-15). 따라서, 사회변동의 측면인 로동당내의 역할 및 규범갈등(당내권력투쟁)과 그리고 당과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동학을 분석요인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성모는 북한주민이 주체사상을 “자기인식의 준거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반 사회주의 모형만

으로는 그 특수한 사회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주체사상 형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치권력 내부의 진전, 그리고 주체사상에 따른 정치사상의식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성모가 1977년에 이해사회학적 방법이 의식의 동기를 규명할 수 있다고 제안할 때도 그 동기로서 주체사상을 논했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황성모, 1977a, pp. 136-138).

황성모는 앞의 글이 실린 「북한학보」에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1980b)를 함께 실었는데, 그는 이 글에서 북한청소년의 호전적, 독재적, 경쟁적 성격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볼 때 그 원인은 정치제도가 가져다 준 “불신” 때문이라고 한다(황성모, 1980b, p. 144). 그 정치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반외세 무계급사회 투쟁에 의한 긴장과 적개심, 반동에 대한 고발로 인한 집단적 불신감, 김일성우상화운동 자체에 의한 불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불신이 심리 내부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⁴⁾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남북한 정치사상 교육연구는 꼬리를 물고 나온다. 정세구(1980)의 「남북한 정치사상교육 비교연구--초 중고등학교교육을 중심으로--」는 1977-1980 기간의 남북한의 정치 사상교육의 정책, 실태, 효과를 비교하였다(정세구, 1980, p. 4).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중심이며 남한자료로는 표본조사 방법과 면담법을 부차적으로 첨가하였다. 남북한 차이점은 정책상으로, 남한은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나,

4) 「북한」지에 실린 김성원(1980)의 4회에 걸친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그리고 이서행(1980)의 “북한사상 교육 실태분석”은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체도를 보기 위한 교육제도 및 가족에 대한 상세한 목적, 조직, 내용에 대한 기술이다. 따로 검토하지 않겠으나 그 사회를 정태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당에 의한 감독과 통제를 철저히 받고 있다고 한다. 실태상으로는, 남한에서는 일부 교과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나, 북한은 전 교과에 걸쳐 교육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교육의 효과상으로는, 남한은 낮은 효과를 거두나, 북한은 전체주의적 방법으로 인해 더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pp. 75-76). 총력 안보를 위해 남한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저자의 대비책 제안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김충남(1980, p. 66)의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비교”에서도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본다. 반공이데올로기가 가져오는 사고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방법론적인 자성의 목소리들과는 달리, “탈이데올로기적 사조”속에서 성장한 남한의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남북한 비교물이다. 이 우려의 표명은 자칫 남한의 정치적 안보, 보안 정책에 편승하여 비학문적 이데올로기적 연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남북한의 교육정책 비교”에서 차경수(1980, p. 118)는 “민주적인 인간의 형성과 국가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초월하여 자기 자신을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국가의식을 확고하게 형성하고 민주적인 신념과 규범을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교육정책 비교에 한 걸음 다가선 입장을 보게된다.

1980년에 상당히 새로운 입장을 표방하는 장일조의 “남북한 청소년의 통일관비교”가 국토 통일원에서 발행한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에 수록되어 나왔다. 장일조는 통일관은 기성세대의 통일관, 청소년 자신의 독자적 통

일의식, 그리고 한반도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둘러싼 국제적 상황의 유기적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제3세계와의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장일조, 1980, pp. 7, 39-41). 그는 제3세계의 신민족주의가 남한의 청소년 가운데 “현실에 민감하고 역사의식이 강한 청년학생들, 즉 여론조성자들”(앞글, p. 39)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신민족주의가 “제3의 이데올로기”(앞글, p. 7)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제3의 이데올로기가 “한반도의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새로운 전망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제3의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체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인이며,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북 청소년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3의 공동의場에서 화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나고, 비학문적인 홍보물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북한관련 연구자들이 방법론적 반성을 되풀이해온 끝에 나온 추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절대적 정권이 비판될 수 있도록 유신 정권의 종말이 가져다준 분위기 변화 때문에, 현재의 것도 비판될 수 있다는 정치적 상황에 힘 입은 바가 크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히 급진화된 1980년대 후반부 이후의 운동권에 비하면 장일조의 모습은 온건해 보이나, 1980년대 초에 “제3의 이데올로기”를 논하는 그의 모습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어쨌든, 1980년대 전반부에는 장일조의 영향을 볼 수 있는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까지의 산발적이고 중립적인 북한청소년

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박용현은 “북한의 정치교화정책과 청소년의 가치관”이라는 논문을 1980년에 발표하였다. 그는 의식 교육의 요인을 형식적 교육(학교교육등)과 비형식적 교육(가정, 사회관계, 대중매체등)으로 나누어서 검토했다. 북한의 형식적 교육인 교육정책은 1977년 조선로동당 제5期 14차 회의에서 채택,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도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박용현, 1980, p. 125). 그 문헌에 나타난 교육목적은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이며, 교육의 기본원리는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인데, 이 목적과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당성과 노동계급성, ②주체확립, ③교육과 혁명실천과의 결합, ④교육의 국가책임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에만 있는 특징인데, 이 사상은 김일성에 대한 “충직”을 강조하는 “유일사상”으로써 교육되기도 하는 정치교화 수단이라는 것이다(앞글, pp. 125-126). 이러한 정치교화정책의 기본적 특징은 첫째,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혁명 추진과 김일성 1인독재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교육, 둘째, 정치교화를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화하는 정책, 세째, 비형식적 교육의 기능과 전통문화를 말살하는 정책, 네째, 당이 교육을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 다섯째, 교육방법의 다양성-- ①집단 ②조직화 ③경쟁 ④자아비판과 상호비판 ⑤공개적 상벌 ⑥통제와 자제의 원리--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교육정책의 특징을 통한 유추와 귀순자에 대한 설문과 직접적인 면접내용을 토대로 박용현은 또한 북한청소년의 의식구조를 도출해보았다(앞글, pp. 132-134). 그것은 ①호전적이며 공격적 ②독재적, 권위주의적 ③폐쇄

성과 지적배타성 ④금욕적, 자아부정적 ⑤권위에 대한 반항결여, 창조성 결여라고 한다. 이것은지금까지 선행 연구물의 발견사항에 대한 종합적 요약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 요약과 유사하거나 되풀이 된 연구물이었음이 재확인되었다. 북한청소년의 정치사회화를 “인간개조”라고 지칭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탈문제를 논한 “북한청소년과 인간개조 실패”라는 글을 1982년에 변진홍이 발표했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사회화 내용을 소개한 후, 북한 공산주의 정치사회화의 목표라는 이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일탈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공산주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심각히 갈등을 가지게 됨으로써 체제반향적 일탈로 나가게 된다는 유추다. 그리고 청소년의 일반적인 사회범죄유형으로는 폭력, 연애, 성범죄, 경제사범으로는 국가재산 횡령, 부정유통 등, 높은 비중의 정치범, 사상범을 꼽는다(변진홍, 1982, pp. 125-127). 그러나, 직접적 자료는 열거하지 못하고 있다.

1982년에 「북한」지의 연구부가 “북한청소년의 사회화 실패”라는 연구논문을 냈는데, 이것은 제목이 명시하는 바 대로 북한청소년의 사회화 실패 연구들을 정리해서 낸 글이다. 여기에는 상세한 내용외에 단 연구물과는 달리 북한청소년 사회화의 계층적 측면을 약간 기술한 특징이 있는데, 로동당원 후보에 대한 간부양성교육이 일부 청소년을 특수 신분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북한연구소 연구부, 1982, pp. 75-77).

이 즈음 한국 공산권연구협의회가 펴낸 연구논총 제 2집인 「북한의 오늘과 내일」에 이흥구

의 “북한연구의 학문적 과제”라는 제하의 북한 연구 방법론에 관한 글이 실렸다. 자료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 자체의 폐쇄정책에 의해서 자료의 결핍문제가 있고, 또한, 남한에서 북한 자료는 “무작정 불온문서로 취급”되어 북한에 대한 연구는 특수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관계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이흥구, 1982, p. 10).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정치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나 신념을 내면화시킨다는의미의 정치사회화 연구를 청소년의 이질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시한 주상룡(1984)의 석사학위 논문이 있다. 문헌과 귀순자 5명의 면담을 이용한 이 연구는 북한이 어떻게 공산주의적 인간조형을 목표로 하는 사회화를 실시 해오나를 기술함으로써 이질화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북한의 교육정책의 일반적 특징이 정치사상 교육의 우선과 전면 기술교육에 있다고 한다(주상룡, 1984, pp. 44-45). 그 구체적 내용이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5대원칙」에 집약되어 있다는 데, 다음과 같다.

- ① 김일성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수행할 것.
- ② 모든 교육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실시될 것.
- ③ 교육의 목표는 “주체의식 확립”에 둘 것.
- ④ 이론과 실천을 양립하여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병진할 것.
- ⑤ 모든 교육 활동이 공산주의 사상가를 육성하도록 직결할 것.

이 논문은 또한 북한에서의 청소년 잡지를 일반사회과학, 문화 예술, 대외선전으로 대별하여 총 28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청소년의 의식, 가치관, 하위문화를 정치사회

화 담당기관으로 부터가 아니라, 청소년으로부터 발견하려는 시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자료의 출처를 제공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앞글, p. 80).

북한의 고등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정치사상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한김영숙(김영숙, 1984, pp. 12-14)은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3화를 교육의목표로서 기술했다. 북한에서 형성하려는 혁명적 행동특성은 호전적, 독재적, 경쟁적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것은 정치사상교육의 원리이자 방법에도 일부 해당된다(앞글, pp. 33-36). 김영숙이 기술한 혁명적 행동특성은 북한의 정치사회화가 낳은 결과로서의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사회화의 특성이다. 이것은 앞의 연구물들에서 사회 정치제도를 통해 연구자들이 유추한 북한청소년의 성격 혹은 가치관으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화의 동기이자 의도된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관계 및 남북한통일 문제와 관련지어 북한청소년을 미래의 북한정치의 주역을 담당할 예비생으로 보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후계세대”에 관한 연구물 세편을 도홍렬이 발표했다(도홍렬, 1983: 1985a: 1985b). 그는 북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사회화의 궁극적 목적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조형하는 것이므로, 전후세대에 대한 사회화는 정치의식의 일방적 주입으로 일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도홍렬, 1983, pp. 169-170). 그런데, 정치사상에 의거한 의식구조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식문서에서 북한의 전후세대인 청소년에게 나타나 는 탈 혁명화의 징조들을 도홍렬은 포착하였다. 그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공산주의자로 철저히 양성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북한문서의

내용에서 이것을 유추한 것이었다(앞글, p. 174).

통일의 주역이 될 남북한 후계세대들의 사회의식비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남북한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작업은 도홍렬의 “세대문제로 본 남북한 관계”(1985b)와 “남북한 후계세대의 의식성향 비교”(1985a)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어진다. 그는 연령 구성별로 세대를 구분해서, 1985년을 기준으로 분단세대(후계세대)는 0-40세이며, 분단이전세대는 41세 이상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이 때 북한 후계세대는 전인구의 81.7%가 되며, 남북한을 합한 후계세대는 남북한 총인구의 약 80%가 넘는 4900만에 이르고있음에 주목하였다(도홍렬, 1985b, pp. 140-141). 도홍렬은 북한청소년의 맹목적 공격성이 남한에 대한 공격 촉진적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며,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의 이질화의 심화가 민족 동질성을 파괴하여, 후계세대간의 이질성이 관계개선을 어렵게 만들어 남북한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리라고 유추했다(앞글, p. 156). “따라서, 남북한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후계세대인이 드러났다”고 한다(앞글, p. 160).

남북한청소년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동질성의 가능성을 시사한 연구도 있다. 박용현(1985)은 공산주의 사회의 교육연구 방법론으로서 역사 기능적 접근법을 제안했는데, 이 종합적 비교분석법의 장점은 “모든 현상이 갖는 역사성과 각 변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으로 본다(앞글, p. 201). 이것은 북한이 의도하는 “공식적 교육이 문화전통과 비공식적 교육기능의 영향으로 그 효과가 제한되거나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토대를 둔 것이다(앞글, p. 204). 문화

체계라는 내적통제가 정치체제라는 외적통제와 별도로 전통문화 속에 존속하면서 남북한 청소년이 어떻게 유사성을 가지게 되는가를 역사적, 기능적, 규범적, 실증적 분석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방법론상 중요한 관건인 분석단위에 대해 박용수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박용수, 1986). 박용수는 특히 북한연구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북한사회를 독립된 하나의 ‘전체로서의 체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다 폭넓은 한반도사회 체계의 하위체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앞글, p. 137). 분석단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북한사회 자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할 경우 사회적 통합의 차원에서는 북한사회의 통합은 북한에 대해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남북한 전체 사회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할 경우 하위체제에 긴장을 일으켜 역기능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분석단위의 설정 자체가 연구의 결과와 그 해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박용수는 같은 글에서 현상학적 감정이입 방법을 통해 ‘우리’라는 생활세계가 구성되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을 연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박용현(1985)의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을 연구 접근법에서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작으나마 새로운 민족적 차원의 연구접근시각의 대두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청소년 의식구조의 변화를 소개하는 글이 박재후에 의해 1987년에 발표되었다. 북한의 교육목표인 공산주의적 인간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일탈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체제저항 사건으로부터 태업 절도 강도 사기 공갈등 사회적 부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박재후, 1987, p. 194). 특히, 젊은 청소년 학생층에는 체제저항 사건이 빈발하다고 한다. 이러한 일탈행위의 원인으로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대한 청소년의 반항심리, 출신성분에 따른 진학, 직장배치가 주는 소외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알굴, pp 196-197).

서동익(1988)은 북한청소년의 경로관 논의에서 청소년의 도덕관이 “인간폭탄”으로 전략해가고 있다고 한다(알굴, p. 135). 그는 북한의 계급투쟁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창조력을 거세해 버렸고, 가정은 대다수 파괴되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모두가 당의 지시를 받아 서로를 비판하도록 제도화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경로심은 청소년의 의식구조에서 제도적으로 말살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은 북한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이 대체로 활발했던 시기다. 공산권 및 북한에 대한 연구이론과 방법론을 총괄적으로 개관해 보는 「북한사회연구」에서 이온죽(1988b)은 지금까지의 북한사회연구의 추세와 현황을 개관하였다. 그 내용의 요약을 보면, ①‘사회’ 측면 연구가 소홀하였고, ②사회분야 연구라고 해도 생활실태, 상황분석 보고가 주종을 이루어 왔고, ③학문적이기 보다는 실태보고, 정책적 예측과전망, 규범적 평가, ④사회학이나 인류학 분야의 참여 저조, ⑤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론 방법론적 접근의 미흡을 지적하였다(알굴, 1988, p. 13).

공산권 사회에 대한 자료수집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다. 이온죽(1988a, pp. 60-72)은 공산권 사회에 대해 수량적 지표로써 측정가능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법을 기술했다. 여기서 경험적 자료의 열거로서 사회 정치 경제 발전의 지표(물질적 소비량, 경제활동 인구, GNP, 등) 공산주의 경제체제 분류법(체제의 ‘동원’정도, 시장의 범위와 정도,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내지 분권화 정도), 자유화 모형(전체주의 유형에서 탈피하는 모습: 청소년들의 소외, 당내 변동, 다원주의 대두, 등)을 제시한다. 연속선 모형에 의한 비교는 상당히 상세히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모형법의 지나친 단순화가 지니는 약점에 착안하여 첫째, 평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변수로는 수입면으로 임금차이, 임금분포 등의 수량화, 무료 사회서비스 제도면으로는 교육, 의료, 주택의 수치, 사회 이동면으로는 단순 노동자 출신이 당과 고위간부직을 점유하고 있는 비율, 사회적 위계의 정도로는 일반대중이 갖는 불평등 의식등의 수량화 제시이다. 청소년 사회화 과정연구와 관련되는 것으로는 연속선 모형에 의한 비교변수中, 도덕적 유인책에 대한 변수인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형’ 형성에 촉진제가 되는 메달, 영웅 칭호 수여등을 든다. 통제의 수단을 보는 변수로서는, 그것이 폭력 강제 혹은 사회적 압력 교육등의 설득방법인가를 대비하여 청소년 사회화 과정을 그리고 측정에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과정 구성과 예술적 표현, 대중매체 내용에서 체제 이념등의 재생산 사회화과정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 경험적으로 수량화 가능한 열여섯 가지 변수의 구체적 예를 연속선 모형에서 제시하였다.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북한연구 전반의

경향과 추세의 일부 하위분야로서 그일반적 성격을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연구시각과 관심은 그 시대의 정치 역사적 상황을 늘 반영해 온 것이었다. 특히, 남한에서 추진된 1987년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0년대 말에 불붙은 동구권의 민주화 운동은 남한의 북한연구 접근시각의 전환을 촉구하고, 북한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동서독의 통일은 민족분단 종식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을 바로 알려는 노력과 학문적 각성이 북한 관련 연구물에 비치기 시작한다. 일찌기 이흥구(1981)는 이러한 시각의 공산권 연구자를 “제 3세대”라고 일컬었다.

한반도의 내외적 상황을 반영하듯, 1989년에 박헌옥의 “전환기 맞은 북한연구의 새로운 시각”이 「북한」지에 게재되었다. 그는 북한연구에 대한 관점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였다(박헌옥, 1989, p. 101). 첫째는, “보수적 안보주의적” 대북시각으로서, 북한의 존재를 남한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비판적, 체제우위 경쟁지향적인 입장이다. 둘째는, “脫반공이데올로기 및 민족주의적” 대북시각으로서, 반공이데올로기 중심의 관점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특히, 후자는 “실효성과 실현성 보다는 아카데미적이고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이상과 원칙을 중시하고, 과정과 절차보다는 합목적성과 결과를 더욱 추구”한다고 한다. 그리고 통일 추구면에서도 “이념적 이질성보다 민족적 동질성을 주시하는 등 통합이상주의 및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박헌옥은 이러한 두가지 관점이 모두 주관적이고 배타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과학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다(앞글, p. 101). 객관성을 지

닌 학문이 되기 위해서 박헌옥은 “종합학문적 시각” 및 “역사적 시각”을 제시한다(앞글, pp. 102-104). 전자는 북한에 대한 접근 분야와 접근 시각의 다원화와 다양성을 의미한다. 즉,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한국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교육학등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다원화하여 부분을 주제로 다루되 전체를 볼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종합학문적 시각에서 박헌옥은 안보중심주의와 민족중심주의를 연구 분야에 따라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측면에서는 동반자적인 민족공동체적 시각으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문제에서는 협상 타협과 ‘억제와 분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역사적 시각으로는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하라는 것인데, 박헌옥의 특수성 강조는 이전의 북한관련 연구자가 누누이 말해 온 남북대결구도 속에서 본 북한 전체주의, 주체사상의 특수성을 말하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는 북한의 항일 반미와 같은 정치적 입장이 외세에 대항하여 형성된 민족적 차원의 동기를 역사적으로 심층분석하지 않고서는 현재 북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앞글, p. 104).

“또 하나의 반쪽”에 대한 좀더 강도 높은 “민족 주체적”인 시각을 토대로 하는 북한 연구 방법론이 강정구(1990)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정구는 북한 사회를 설명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지렛대는 무엇인가라는 자기 확인”(강정구, 1990, p. 24)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만이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민족 민중지향적인 역사 흐름의 근원을 조선 사회 이후의 내

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보여준다. 이것은 다분히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분석들에 준한 것이다. 그러므로써, 강정구는 내재적 요인들에 대한 총체적 관계 파악의 중요성과 역사적 비교법을 북한사회 연구 방법론으로서 강조한다.

청소년만 한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에 해당하는 연구지만,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연구물이 있다. 김창희(1990, p.5)는 북한 사회에서 정치는 조직, 지도, 통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비판적 이론으로 출발”한 네오마르크스주의자의 헤게모니 이론이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설명할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제관계를 재생산하는 하부구조 분석을 통해 계급적 착취를 논하는 틀과는 달리,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이 계열에서 Gramsci의 헤게모니 개념은 지배계급을 유지하고 그런 체제를 재생산하는 신념과 관련된다. 따라서, 정치사회화에 대한 헤게모니이론은 “어떻게 국가가 자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정치사회화 과정에 개입하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설명체계(앞글, p. 6), 북한의 매스미디어에서는 선전과 점열에 의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다(앞글, p. 9). 지배체제의 재생산이 지배 계급 이념의 사회화에 토대를 둔다는 이러한 시각을 북한청소년에 대한 사회화 연구에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주종을 이론구조기능주의 시각에 입각하여 전체주의 모형을 對位 적용한 문화의 유형유지 기제 분석들과 묘하게 유사성을 가지게 된다.

1990년에도 북한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슷한 연구(도홍렬, 1990)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연극, 영화, 미술, 음악이라는 예술이 북한에서 수행하는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약간이나마 기술한 박문갑의 논문(1990)은 다소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물과 북한 문헌에 나타나는 자료를 토대로 도종수와 김미숙(1990)은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비교”를 공동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남북한 각 사회의 (1)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핵심 원칙 및 정책수립에서 국가의 역할 또는 기능 (2) 사회화의 담당기관 (3) 청소년의 의식 태도 가치관 및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압축해서 비교 정리하였다. 다른 연구물과 달리 이것은 북한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범죄행위, 강도 절도 소매치기등의 경제사범, 정치사상범으로 구분해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학교와 직장에서의 엄격한 제재 조치로서 진학이나, 직장배치 가능성에서 제외, 그리고 산간벽지등의 오지로의 강제이주 등을 보여준다(도종수 & 김미숙, 1990, pp. 260-263).

선행 연구물이 남북한을 비교할 때 항상 남한을 비교의 준거점으로하여 북한의제 측면에 대해 비판일변도를 취해왔으나, 이 논문은 상당히 남북한 양측에 대해 객관적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들어, 저자들은 남한의 학력지상주의, 형식에 그치는 실업교육, 청소년 단체의 인력 및 시설 부족등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였다. 남북한의 비교는 양측의 자료가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어려운 실정인데, 남한의 공식적 사회화의 목표 뿐만아니라, 비공식 세계의 실문제로써 남북한 청소년을 비교한 것은 편향적인 분석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

인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북한청소년에게 씌워진 정치 사회의 구조적 굴레를 보았으나, 남한 청소년에게 씌운 사회 구조적 굴레를 알아보지 못한 비교의 문제가 있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1980년대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검토에 의하면, 광의의 정치사회화 개념에 해당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도적, 비의도적인 모든 정치적 학습을 포괄하는 사회화과정을 연구하기 보다는, 협의의 개념인 공식적 매체에 의한 이념, 가치등이 의도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주로 다루어 온 것이다(안병영, 1977b, p.102). 1980년대 이후 특징적으로 보이는 연구방법의 새로운 경향은 미약하다. 그간의 방법의 한계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또한, 80년대에도 연구 내용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규정이 없이 접근한 연구물이 태반이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연구물이 1970년대의 연구 이상의 깊이와 폭을 더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일부에서 나타난 선명한 궤적은 민족화합을 향한 연구 접근법 모색에 있다.

IV.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논의 및 제안

이제까지 개괄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남한에서의 북한연구의 자료의 질과 자료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다. 이것은 연구대상 자체의 문제가 되며, 그 원인은 한편으로, 북한 당국 자체의 출판 인쇄물에 대한 공식적 통제에 기인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유출되는 공식자료 자체도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태환, 1987, p. 119).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당국이 북한 출판의 대부분의 자료를 불온문서 취급하여 북한 자료가 정책적 목적으로 개방되고 연구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의 특징은 자료의 입수 한계에 따른 방법론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개괄한 연구물은 거의 모두 다 북한청소년의 정치사회화 문제를 직접 간접으로 다루고 있다. 직접관찰에 의한 일차적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므로 간접적 자료인 문헌의 내용분석이 주종을 이룬다. 간혹 귀순자 및 월남자와의 면접 및 설문을 자료로 이용했으나, 그런 자료는 표본이 너무 작고 귀순자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청소년 전체를 잘 대표해주지 못하고, 편중된 특성을 가졌을 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이런 연유로 자료분석의 한 방법인 내용분석에 의존하나, 북한의 자료가 거의 공식적 차원의 자료이므로 비공식 차원의 행위나 가치는 관찰도, 측정도 불가능한 상태다. 정태환(1987, p. 119)은 이것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들을 통하여 분석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이상들의 결과로서 현상태를 분석하느냐”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사회화의 사상, 이념, 교육의 목적등의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은 상당히 되풀이하여 중첩적으로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영향을 준, 또는 형성한 사회화의 결과로서의 북한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 의식에 대한 측정은 독립변수와 동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단편적 사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비약적 유추에 의한 부분적 추정치만 가능했다. 황성모(1989, p. 27)가 논평한 바와같이,

그런 결과물들은 “학문적으로 검증의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주장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검증안된 유추에 의한 발견적 사실을 다른 연구물들이 재편집하여 확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청소년의 어떤 모습들이 남한 사회에 잘못 투영된 것이 없을까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북한청소년에 대한 잡지식 연구물들이 김명섭(1989, p.22)이 언급한바와 같이, 필자의 독특한 해석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연구자의 입장을 빌은 것인지, 북한의 공식입장인지를 밝히지 않고 쓴 것은 더욱 독자들로 하여금 실상과 허상의 혼란 속에서 헤매게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가 변수들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또 개념설정이 적절한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온죽(1988b, pp.15-16)이 제기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못하므로, 선행 연구물들에 적용된 질적 접근에 나타나는 공통의 특징은 분석적이지 못하고 서술적이고, 이론적 모형을 준거로 하여 북한사회를 그 모형에 맞춰 분석하는 모형접근적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순수 정치학적 연구와는 달리 상당히 느슨히 모형을 따른 것 같다. 중요한 점은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정치사상과 사회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훨씬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물이 나오고, 여러 수준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토록하는 제도적 배치도 있어야 한다.

북한청소년 연구에 내포된 세계 특징은 연구자의 분석시각의 문제에 있다. “객관적이고 과

학적인 분석시각의 정립”(신정현, 1989, p. 168)의 필요성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북한사회의 본질을 보는 시각은 인식의 문제에 해당한다(구본태, 1981, p. 156). 이 인식의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이론적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공산권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시각 자체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 기능적 모형에만 기반해서 연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현대사회 과학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남북한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을 다듬어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논리의 강변만을 일삼는 좌편향적” 인식도 반공논리에 의한 인식도 문제가 있다(김명섭, 1989, pp. 21-22). 다시 말해서, 반공이데올로기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반사에서 극단적인 교조주의적 입장으로 빠져들어가도안될 것이다(이홍구, 1981, p. 16).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당위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본 연구의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청소년 연구에서 학문적 경직성을 탈피하여 과학성, 객관성 구축문제는 중요하다. 거시적 사회 정치 구조의 맥락내에서 미시적 중범위 이론이 개발 적용될 때, 분석의 공백이 메워질 뿐 만 아니라 논지 자체도 덜 이념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북한에 대한 연구 일반과 청소년 연구는 객관적 조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국내 사정의 경직성, 흑백논리의 문제는 이미 익숙한 말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개개의 연구자의 문제점이 되기 보다는 남한의 북한연구학계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북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연구를 위해 연구주제와 방법을 다원화 해야할 것이

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정치사회화 담당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사회화의 대상인 청소년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관찰에 의한 자료수집 불가능의 문제가 있으니, 중국연변지방에서 북한청소년을 면접하거나, 최근 귀순한 북한의 동구권 유학생에 대한 심층면접, 또는 이온족이 실시했던 북한소설을 중심으로한 분석법을 통해 청소년의 내적 가치관, 외적 행위를 재구성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북한청소년의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의식상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젊은 층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이니(국토통일원, 1983),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성장에 따른 사회화의 차이,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도 조사 연구될 분야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체계적 연구, 청소년에 대해 실시되는 사회복지혜택은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 분야로는 북한의 정치와 변화에 따른 당국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변화 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동구권의 대변혁에 따른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구성이 나와야 한다.

북한연구는 남북한 통일문제와 떼놓고 추진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북한청소년 연구도 “민족공동체적 시각에서 남북이 함께 책임의 공유의식”(김경웅, 1990, p. 55)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민족에 대한 강조가 국수주의적 접근법을 낳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청소년이 북한사회의 후계세대라는 의미에서 북한청소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부터 여과된 신중한 정책수립을 기대한다. 부언하여, 남과 북을 구별하여 지칭하는데 혼란의 문제가 있다. 남쪽을 한국이라고 지칭한 연구물이 통일 후에 읽혔을 때, 그것이 남쪽을 의미하는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지 혼란이 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공식토론이 있어야 한다. 이제 한반도의 민족통일은 신화의 단계를 지나 “합의서”가 형성되는 단계까지 왔으니 더욱 그러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이기 보다는 연구성과에 대한피상적 수준의 개괄적 소개에 머물렀고, 기존연구의 방법과 이론에 대한 대안의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문제제기에 그쳐버린 감이 있음을 밝히둔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청소년에 대한 개별연구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강정구(1990), “연구 방법론 : 우리의 반쪽인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강정구(편),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1-37쪽.
고영복(1978), “북한청소년의 사회화 추세.” 국토통일원(편), 『북한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국토통일원.
고영복(1979), “북한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성격.” 『북한학보』 3집. 131-154쪽.
구본태(1981), “북한 연구를 위한 접근론 서설.” 『북한학보』 5집. 135-163쪽.
국토통일원(1971), 『북괴사상 교육내용과 그 본

- 석」, 국토통일원.
- 김경웅(1990. 5), “정치사상교육의 이론과 구조적 특징.” 「북한」. 54-62쪽.
- 김광수(1985. 5), “자료 이용의 활성화 기대속에 질보다 양이 앞서.” 「북한」. 78-87쪽.
- 김광웅(1978),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박영사.
- 김명섭(1989), “해방 이후 북한현대사 개괄.” 연세대 대학원 북한현대사 연구회(편), 「북한현대사1 - 연구와 자료」, 공동체.
- 김성원(1980. 9),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I),” 「북한」. 128-147쪽.
- _____ (1980. 10),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II),” 「북한」. 182-196쪽.
- _____ (1980. 11),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III),” 「북한」. 147-163쪽.
- _____ (1980. 12),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IV),” 「북한」. 168-181쪽.
- 김영숙(1984),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에 관한 연구 - 고등중학교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순(1981), “공산주의 및 공산권연구개관.”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편), 「공산권연구현황」, 법문사.
- 김창희(1990), “언론매체를 통한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편),” 「북한 통일 연구논문집」, 국토통일원.
- 김충남(1980),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비교.” 국토통일원(편),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국토통일원. 61-112쪽.
- 남인숙(1990), “북한의 사상교육 : 발달과정과 전망.” 양재인 외, 「북한의 정치이념 : 주체사상」,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 도종수, 김미숙(1990),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비교.” 국토통일원(편), 「남북한 사회문화 역량종합평가」, 국토통일원. 193-280쪽.
- 도홍렬(1978a)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비교」, 서울:국토통일원.
- _____ (1978b),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실태.” 국토통일원(편), 「북한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국토통일원.
- _____ (1978c, 8), “북한 해방세대의 의식구조,” 「북한」. 124-133쪽.
- _____ (1983. 5), “북한의 전후 세대론,” 「북한」. 167-175쪽.
- _____ (1985a, 4), “남북한 후계세대의 의식성향 비교.” 「북한」. 133-147쪽.
- _____ (1985b), “세대 문제로 본 남북한관계.” 「북한학보」 9집. 137-165쪽.
- _____ (1990),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 최명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12-140쪽.
- 박문갑(1990), “북한의 교육체제와 정치사회화.” 김갑철외, 「북한학개론-북한 사회주의 현재와 미래」, 문우사. 259-302쪽.
- 박용수(1986. 11), “학문적 연구의 출발점 설정의 좌표.” 「북한」. 136-139쪽.
- 박용현(1980), “북한의 정치교화정책과 청소년의 가치관.” 「북한학보」 4집. 123-138쪽.
- _____ (1985. 4), “종합적 비교연구와 모형을 통해 교육의 성격 분석되어야.” 「북한」. 199-206쪽.
- 박재후(1987. 4), “북한의 청소년 범죄와 의식구조의 변화상.” 「북한」. 194-197쪽.
- 박현옥(1989. 2), “전환기 맞은 북한연구의 새로운 시작.” 「북한」. 100-104쪽.
- 변진홍(1982. 6), “북한 청소년과 인간개조실태.” 「북한」. 120-129쪽.

- 북한연구소 연구부(1982. 11),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실태.” 「북한」. 60-83쪽.
- 서동익(1988. 8), “북한 청소년들의 경로관.” 「북한」. 135-141쪽.
- 신정현(1989. 9),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북한」. 158-168쪽.
- 안병영(1977a), 「기존통일 및 북한관계연구의 주제별, 방법론별 평가 및 발전방향정립」. 국토통일원.
- _____(1977b), “정치사회화의 비교연구 서설 -서구이론의 공산권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 어운배(1973), 「북한여성의 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 염홍철(1987), “서론 : 연구현황과 방법론.” 고현욱외,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11쪽.
- 유종해(1975. 11), “남북한 청소년 학생의 가치관 형성.” 「북한」. 78-93쪽.
- 이상우(1981), “북한연구.” 한국공산권 연구협의회 (편), 「공산권연구현황」. 법문사. 79-100쪽.
- 이서행(1980. 8), “북한의 사상교육 실태분석.” 「북한」. 159-173쪽.
- 이시재(1985. 여름), “한국사회학의 발전 변동론 연구.” 「한국사회학」 19집. 49-72쪽.
- 이온죽(1988a), “북한사회 연구의 모형론적 접근.” 「북한사회연구」. 54-82쪽. 서울대학교출판부. 52-82쪽.
- _____(1988b), “북한 ‘사회’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적 문제.” 「북한사회연구」. 서울대학교. 3-25쪽.
- 이 중(1977. 8), “주제선별 우선의 제이론 원용.” 「북한」. 200-207쪽.
- 이필은(1973), “북한 청년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흥구(1981), “공산권연구의 시각과 문제점.”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공산권연구현황」. 법문사. 13-23쪽.
- _____(1982), “북한연구의 학문적 과제.”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법문사.
- 임채욱(1985. 5), “낮은 우선 순위로 양적 열세와 학문적 접근 미흡.” 「북한」. 99-109쪽.
- 장일조(1980), “남북한 청소년의 통일관 비교,” 국토통일원 (편),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3-60쪽.
- 정세구(1980), 「남북한 정치사상교육 비교연구 -초·중등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 정진성(1985. 여름), “한국사회학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 반성.” 「한국사회학」 19집. 3-26쪽.
- 정태환(1987), “북한의 정치와 정치변동.” 「아세아연구」 30(2), 117-155쪽.
- 조물환(1978),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비교」. 국토통일원.
- 조영빈(1973),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척도모델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 주상룡(1984), “북한의 정치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 이질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덕규(1990. 겨울), “한국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치학적 인식-연구경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권 3호. 5-18쪽.
- 진원중(1978), “북한의 청소년사회와 정책.” 국토통일원 (편),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 연구」. 국토통일원.
- 차경수(1980), “청소년에 대한 남북한 교육정책 비교.” 국토통일원 (편),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113-178쪽.
- 채중목(1973),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 황성모(1975. 8), “북한학 연구방법의 역사론적 시각.” 「북한」. 93-101쪽.
- _____(1977a), “북한연구 논고 : 이해사회학적 방법론 시론.” 「통일정책」 3(2), 131-148쪽.
- _____(1977b, 8), “통합 갈등 모델의 시론적 혼합.” 「북한」. 192-199쪽.
- _____(1980a), “북한연구 현황과 방법론.” 「북한학보」 4집. 11-28쪽.
- _____(1980b),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본 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북한학보」. 4집. 139-149쪽.
- _____(1989. 6), “북한학 연구방향에 관한 일성론.” 「북한」. 26-33쪽.
- Turner, Jonathan H. (1990), 「사회학이론의 구조」. 한길사.
- Weber, Max (198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을유문화사.